



농수산물 수출

Zoom In 74호

I 국산 배 호주 수출 가능 지역(진주) 추가, 올해도 수출 가능

II 에티오피아 식량원조 쌀 수출검역지원

III 10개 시군 수출 유망 고품질 식량 제품 컨설팅



농수산물 수출 Zoom In 74호 2020. 5. 29(금)

‘20.4.30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31.1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0.5% 442백만불	  4.7% 1,935백만불	  12.5% 737백만불
+ 김치, 닭고기, 배 - 인삼류, 딸기, 파프리카	+ 라면, 쌀가공식품, 비스킷 - 궤련, 음료, 커피조제품	+ 김, 미역, 오징어 - 참치, 굴, 고등어


국가별

* 쌀 무상원조 실적('19(2.0백만불), '20(1.8))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미국**
473백만불(27.6%)


 궤련(87%), 김(35%)

 배(△9%), 참치(△9%)


 **EU**
198백만불(4.8%)

 커피조제품(95%), 라면(57%)


 참치(△14%), 음료(△4%)

 라면(42%), 닭고기(36%)


▶ 말련 유통업체 연계 유아용 스낵 판촉(~6.30)

 인삼류(△18%), 딸기(△5%)

홍콩 
133백만불(△1.3%)


 닭고기(8%), 라면(7%)


▶ 인니 대형유통업체 연계 종합식품 판촉(~6.11)

 참치(△26%), 음료(△9%)


▶ 말련 온라인 종합 판촉(~6.30)

ASEAN 
609백만불(△1.9%)


 김치(17%), 김(4%)

 궤련(20%), 파프리카(△12%)

일본 
648백만불(△5.6%)

 라면(47%), 인삼류(13%)

▶ 대형 온라인몰 연계 인삼류 판촉(계속)

 김(△25%), 조제분유(△8%)

▶ 왕흥 연계 음료(유음료, 유자차) 판촉(계속)

중국 
476백만불(△8.6%)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20. 1. 1 ~ 4.30



- 곡류조제품

◇ CV 19로 인하여 쌀 대체재로 비축이 가능한 곡물 제품 소비 증가

29,988천불(36.2%)

▶ 주요 수출국 : 미국(12,082천불, 64.7%), 중국(6,755, 87.2), 호주(2,115, △17.2), 필리핀(1,799, 27.7), 대만(1,365, 50.1), 홍콩(1,256, 36.4)

- 소스류

◇ CV 19로 인하여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소스류 판매 증가



▶ 주요 수출국 : 미국(21,906천불, 19.9% ↑), 중국(18,483, 47.1), 러시아(9,366, 30.1), 일본(7,1719, △1.9), 베트남(4,395, 5.8), 필리핀(4,064, 14.4)

95,191천불(21.1%)



- 김

◇ CV 19로 인한 미국내 사재기 현상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

186,866천불(0.7%)

▶ 주요 수출국 : 미국(44,930천불, 35.2%), 중국(35,651, △25.3), 일본(30,932, 3.7)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

식물검역 이슈



국산 배 호주 수출 가능 지역(진주) 추가, 올해도 수출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기존 호주 수출 가능 지역이었던 나주, 상주, 하동 단지에서 생산한 배를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에도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호주로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단지를 등록한 후 호주 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병해충 조사를 통하여 해당 시(군)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2015년 중부 지역의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호주는 당시 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하였다. 이에 검역본부는 과수화상병 국내 발생 정보와 방제 현황을 투명하게 호주 측에 제공하여 기존에 수출이 허가된 나주, 상주, 하동 지역을 지속적으로 수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산 배의 수출이 계속될 수 있도록 검역 협상을 완료하였다. 또한, 경남 진주시가 호주 수출을 희망하여 검역본부는 호주 검역 당국에 과수화상병 무발생지역인 진주를 수출지역으로 추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난 4월 초에 호주 측은 이에 동의하였다.

검역본부는 국산 배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실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과 지자체도 과수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앞으로 신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검역 및 협상 등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배 호주 수출가능지역(4시·군) : 상주·나주·하동·진주
- * 수출 추이 : ('00) 12톤 → ('05) 24 → ('10) 85 → ('19) 218

에티오피아 식량원조 쌀 수출검역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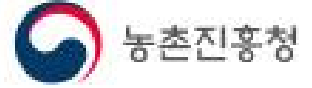


검역본부는 우리 정부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원조협약(FAC)의 식량원조 계획에 따라 에티오피아에 원조하기로 쌀 16천톤에 대하여 수출식물검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원조 물량은 목포 대불부두에서 '20.4.20부터 5.15까지 하루 평균 1천톤씩 선적하여 16천톤 선적이 완료되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감독하에 소독(PH3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 5.20일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WFP : UN 산하 식량원조기구(World Food Programme)
- * FAC :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

농진청 이슈



농촌진흥청, 10개 시군 수출 유망 고품질 식량 제품 컨설팅

농촌진흥청은 지역별로 특화된 수출 유망 식량 작물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북 상주를 시작으로 5월부터 맞춤형 수출기술 컨설팅(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수출 단지나 법인 등의 소수 대표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 맞춤형 수출 기술 컨설팅은 품질이 우수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식량작물 제품을 생산하는 농가 및 업체에게 관련 정보와 수출 절차 및 규정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맞춤형 수출기술 컨설팅은 ▲충남 천안(들깨) ▲전북 고창(보리/가공품) ▲경북 상주(쌀/가공품) ▲경남 합천(쌀/가공품) 등 총 10개 시군지역에서 진행되며, 컨설팅 대상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지역 특화 수출 유망 식량 작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작목반 또는 영농 조합 법인이다. 대상별로 기술 수준과 수출 경험 등을 통해 ▲상품 생산 및 가공 ▲수확 후 관리 ▲해외 시장 정보 및 시범 수출 등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이 유망한 상품을 발굴하고 미국으로 시범 수출하기 위한 미국 수출 설명회 및 심층 컨설팅도 9월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식량 작물 가공 업체의 가공품을 1차 검증한 후 유망 가공 업체를 선별해 수출 시장을 겨냥한 성분, 맛, 포장, 선적 등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현지 유통 업체를 초청해 수입국의 소비 취향에 맞는 수출 상품을 적극 발굴 할 계획이며, 또한 경북 영주에 위치한 업체의 고구마 쿠키 수출을 지원한 바 있다. 미국인 입맛에 맞춰 개발된 고구마 쿠키는 올해 1,200만 원 규모가 수출됐으며,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수출 상품을 해외 한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외국인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시범 수출도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농진청 이슈 문의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